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 문화적응의 상호주의를 향하여¹⁾

김 은 경 (고려대 대학원 · 심리학과)

ekkim@korea.kr

허 석 재 (아세아문제연구소 · 연구원)

homework@korea.kr



문제 제기

사회 심리학과 규범적 사회이론 간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사회 심리학이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사회적 맥락과 동학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규범적 사회이론은 표방하는 거대 가치에 비해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자의 내면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심리학은 집단 속의 개인의 변화에 관점이 머무는 반면, 사회이론은 규범적 이론화와 가치지향에 그치곤 했다.

1) 저자 중 허석재는 2009년도 두뇌 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았음.(BK21-년도-인09A1408)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심리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동기화된 심리적응 노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대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사회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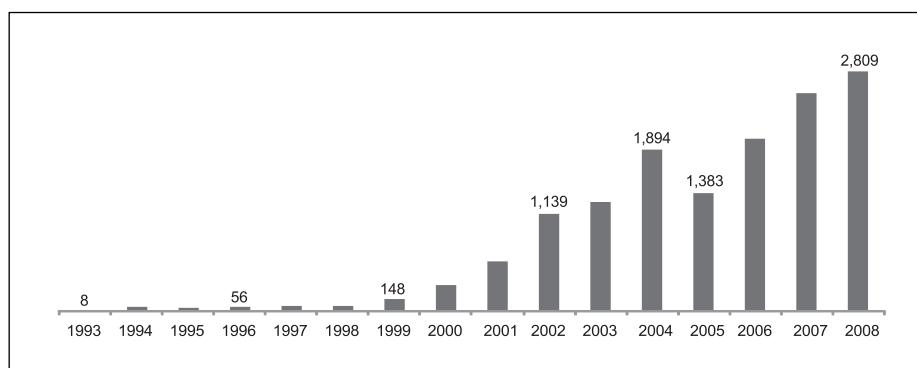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국을 떠난 점에서 난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발적 이주이므로 이민자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인 범주의 난민이지만, 정착하고자 선택한 곳이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냉전기는 물론이고 90년대 초반까지도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한해에 10명 이내에 불과했고, 주로 군인이나 자수한 간첩이었다. 이들은 체제경쟁 차원에서 귀순용 사로 치장되고 특혜를 보장받았으며,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김일수 2009). 이제는 남북한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에서 비교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탈북자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만7천명이 넘는 수가 남한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된다.

탈북의 원인과 동기가 달라지고,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정책 뿐 아니라 학문적 논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해서 대부분 경제적 자립과 생활 정착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그들의 심리적 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심리적 문제를 호소해 왔으며, 이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해 4월 1면 머릿기사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보도했다(연합뉴스 2009. 4. 13; Chang et al.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이라는 주제는 처음에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응 지표나 병리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이런 연구들은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추이(1993~2008)



(통일부 www.unikorea.go.kr 검색일 2010. 2. 4)

고 개인적 수준에서 이뤄지는 적응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정



북한이탈주민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국을 떠난 점에서 난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발적 이주이므로 이민자 이기도 하다.

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해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소홀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문화적 차이와 특수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문화(異文化) 집단의 적응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했다. 일방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는 동안 적응을 해야 하는 뜻은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에게 넘겼던 것이다. 최근 들어 청년층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영국 등 유럽지역으로 새로운 이주를 떠나는 현상은 기존의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새터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이고, 도구적이며, 온정주의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쌍방적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존재가 민족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도구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러한 편견이 작용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적응의 상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특성을 검토하고, 난민으로서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회심리학의 비교문화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적응 개념을 소개하고, 집단적으로 문화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각을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보아, 남북통합의 차원에서 갖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5장은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끝맺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 북한을 탈출한 이탈주민으로서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난민으로서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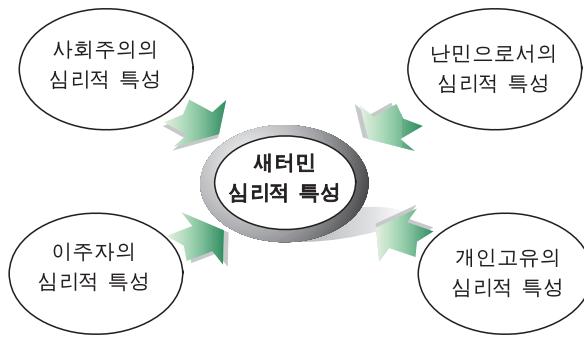
야 한다. 때로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요소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 양상을 띠고 나타나며 개인에게 갖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내에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집단 내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단 특성이나 사회주의하의 개인이 보일 수 있는 심리적 특성 등 일반적인 변인만 고려하여 정작 개인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자주 범한다. 일종의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의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경험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개인의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개인을 이해할 때는 더욱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 소수집단이자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 부정적인 면에서 정형화되기 쉬우며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약점이나 자원부족에만 너무 몰입하여 심리적 특성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균형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

북한이라는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의 직설성이다. 남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북한식 감정표현방식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남한식 의사소통방식은 불분명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즉, 남한 식의 우회적 의사소통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의 상대적인 직설성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의미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애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상당수는 이런 우회성의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끝맺는 표현에 대해 무엇이라고 감을 잡을지 모른다고 호소한다. 분명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조직생활과 총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상호비판문화가 강한 북한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은 남한 내 대인 관계에서 대인접촉력을 떨어드리고 예기치 않은 오해와 부적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권력민감성과 연고주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권력에 민감하며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북한에서 사회적인 연줄이나 인맥은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능력, 실력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인 바, 힘의 관계에 민감해지며 자기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이러한 권력의 도움이 더욱 빠른 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남한 정착과정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셋째, 북한을 탈출한 이탈주민으로서의 특성을 보면, 강한 외부통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의 구성



제소재를 들 수 있다. 북한이 탈주민의 경우, 심리적 문제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신의 변화로 해결 하려 하기보다 외부적 현실 변화나 직접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제의 발생에 있어 기여하는 자신의 역할보다는 타인, 환경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해석하는 외부귀인(external attribution) 경향이 강한데, 이 같은 특성은 자신이 변하기보다는 세상과 환경, 타인의 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또한, 이런 특성은 사회적으로는 저항성이나 부적 감정의 투사, 강한 비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성은 정착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심리적 강점이다. 이러한 개인성은 구체적인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면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면모는 북한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맞게 훈련된 태도이자 성품으로 위기나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북한이나 제3국에 두고 온 가족 등 자신의 삶의 이유를 떠올리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보인다. 또한, 기아, 북송시 수감 생활 등 생사의 위협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데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개인함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의 한계경험을 하였고, 이를 이겨냈다는 것을 토대로 어떤 도전과 어려움도 결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태도는 정착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난민으로서의 심리적 특성

생존자 죄책감(survivor guilt)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어떤 면에서 순전한 의미의 외적인 공격이나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탈북과 관련된 자기결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탈북이후에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될 신변상의 위협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정하여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배경이 있으

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생존자 죄책감(survivor guilt)를 안고 살기 십상이다. 북한이 탈주민들에게는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떠나왔다’는 기본적인 죄책감이 존재하며,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북 가족의 신변에 대한 걱정은 현실 속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탈북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비교적 풍요롭고 즐거운 남한생활에 대해 ‘스스로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신의 탈북결정은 북한이라는 체제와 정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강한 항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보상받으려는 시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우울감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 적응을 저해하기도 하는데, 북한이 탈주민들에게 탈북에 대한 의미부여는 심리적 생존을 위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탈북에 대한 의미부여는 개인적으로 죄책감을 다루고 자신의 탈북이유를 설명해주며, 외상에서 파생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희생자 · 소외자 역할 안착

북한이 탈주민들은 억압당하고 소외된 자로서의 희생자 정서가 강하다. 북한이 탈주민의 희생자 정서는 북한이라는 체제로부터의 억압, 제3국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노동착취,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 등, 희생자와 소외자로서의 삶의 반복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겨난 희생자 정서는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현실을 과장하며 피해의식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희생자라는 점을 자신의 불리한 위치에 대한 면죄부나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희생자, 소외자 역할에 머물게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는 계속적인 특혜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도전하지 않는 삶을 당연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쟁적인 환경에서 남한사람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며, 낯선 환경에서 소외감을 다시금 경험해야하거나 주변인이 되는 것을 피한다. 이렇듯 소외자, 희생자 역할에 안주하는 것이 안전하며, 도전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등, 외견상 사회적인 불리함으로 인해 북한이 탈주민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용납되거나 당연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책임 회피적 행동이 실제적 현실 환경에 대한 건강한 방어인지, 아니면 방어기제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 북한이 탈주민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불리한 위치를 더욱 과장, 왜곡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다루어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충분히 보고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난민 외상(refugee trauma)의 임상 양상²⁾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trauma)은 탈북 전, 탈북과정, 탈북이후에 거쳐 누적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난민 경험의 전체적 맥락 내에서 난민 외상의 상대적 중요성과 심리적 영향은 난민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전문가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논란거리이다(Bosoglu et al. 2001). 비슷한 외상 경험을 하더라도 모두 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외상경험 이후 이와 관련된 증상을 겪더라도 현재 생활을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 이 있는 반면, 전형적으로 부적응적인 생활패턴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외상후 스트레스증상의 심각도와 적응상 미치는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 및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과 그로인한 후유증상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필요한 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외상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상후 증상은 전형적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탈북이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심리적 요인들이 추가되어 매우 복잡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당시와 탈북과정상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재북당시 강제로 수감된 경험(교화소, 노동단련대, 강제수용소 등)
-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의 사망, 체포, 행방불명 소식을 득문한 경험
- 가족과의 사별
- 탈북과정 및 제3국 체류과정에서 발각/체포의 두려움
- 제3국 체류시 공안, 경찰의 체포 및 강제송환
- 오랜 기간 집단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
- 제3국에서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언어에 대한 두려움

나.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북한 이탈주민들에게는 외상경험의 재경험, 회피, 각성 등의 전형적 증상보다도

2) 이 부분은 공저자 김은경의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임상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장기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성격변화, 정서조절곤란 등의 복합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내 성격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는 식의 성격 변화나 정서조절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스스로를 돌보고 진정시키는 자기 진정능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진정능력의 장애는 불안하고 약해졌다는 느낌에 대한 방어가 노여움으로 표출되며, 이러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소, 논쟁 등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외상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에 대해 보상을 얻음으로써 무력감을 극복하고자 하며, 외상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좌절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 강력한 보복동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심리적 외상경험은 세상의 안전성, 질서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잃게 하며 권위적 인물에 적개심을 품게 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어든다. 외상의 피해자가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치감이 무너지게 되며 희생자 정서가 강력해진다. 자기정체감의 파편화와 무력감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희생자로서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어이기도 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난민 집단에서 외상으로 인한 손실은 성마름이나 분노 반응으로 인한 대인관계 손상, 법적 문제 연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도 해당하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단순폭력 범죄 발생빈도가 높고, 가족, 직장 등 중요 생활 영역에서 분노 폭발로 인한 관계 손상과 단절이 흔히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문화적응의 상호적 접근

문화는 자기감(sense of self)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정체감의 한 영역은 특정 문화적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갖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yder et al 2000).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동할 때, 자기 정체감의 많은 부분이 새로운 문화내의 경험과 정보에 적응하기 위해 수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문화적응이라고 하며, 문화적 균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Redfield 1936).

비교문화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그 주요관심은 크

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문화간 동질성, 이질성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문화이동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는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일반적인 문화유입이나 특정한 사회화의 방법으로 개인행동의 변이와 문화적, 환경적 맥락을 설명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로 두 문화 속에서 경험과 관련된 개인행동의 연속성과 변화를 문화적응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Berry 1989; 독고순 2000, 재인용).

본래 집단 수준의 현상을 지칭하였던 문화적응(assimilation)의 개념은 현재는 개인 수준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때의 문화적응(assimilation)은 심리적 문화적응이라고 개념화되는데, 집단적으로 문화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문화 집단 속의 한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베리(Berry 1980, 1992)는 문화적응 분석에서 두 차원으로 나누어 생태학적,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수준이 되는 전체 수준과 개인의 행동과 특성인 개인적 수준을 제안하고 있다. 두 차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변화의 현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전체수준의 문화적응에서는 사회구조, 경제적 기반, 정치적 조직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나, 개인수준의 문화적응은 행동, 정체성, 가치, 태도 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독고순 2000). 본 연구에서는 두 문화속에서 경험과 관련된 개인 행동의 연속성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 개념을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³⁾

문화적응이론의 흐름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의 적응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자신의 종속적 위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그 대응방식은 인종, 민족 관계뿐 아니라 한 사회내의 소수집단 대응 양식으로도 나타난다. 그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다원주의적 소수집단은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양식을 지키며 주류사회의 주요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참여하는 양상을 띠며, 둘째, 동화주의적 소수집단은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 통합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분리주의적 소수집단은 동화나 문화적 자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주류사회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며, 호전적 소수집단은 분리주의적 소수집단처럼 주류사회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집단을 지배하여 자신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3) 독고순(2000)과 채정민(2004)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양상을 보인다 (Wirth, Louis 1945; 윤인진 2001, 재인용).

또한, 문화접촉의 결과를 집단수준의 결과와 개인적 수준의 결과로 나누어 분석 한 연구도 있는데, 집단수준에서는 학살(genocide), 동화(assimilation), 격리(segregation), 통합(integration)의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ard & Kennedy 2001). 또한, 문화접촉의 개인 수준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과(passing)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높다고 여겨지는 사회로 이주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태도로, 본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민족적 정체감은 상실하게 된다. 국수주의(chauvinism)는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문화를 과장하는 방법, 주변화(marginalization)는 두 문화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재(mediating)은 두 문화를 모두 받아들여서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방법은 개인적 성장과 집단간 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Ward & Chang 1997 ; 정진경 외 2004, 재인용).

이러한 분석들을 한국사회 안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해 볼 때, 한국사회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문화나 가치를 받아들이고 생활방식의 차이가 없어져 ‘남한화’ 되는 것이 적응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화적인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신들의 원문화(original culture)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한국사회에서 동화주의적 적응전략을 취하며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거나 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할 때 주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응의 단일차원과 다차원이론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접촉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내었다. 문화적응에 관한 초기의 논의들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주한 사람이 수용국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단순히 문화간 차이를 해소하면 된다는 발상에서였다. 그러나, 후기 연구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적응의 상태라고 믿게 되었는데, 이 변화는 이념적 지향에 따른 논리의 변화만이 아니고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진경 외 2004).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이론은 단일차원의 모델(unidimensional model)과 양차원 모

델(bidimensional model)

로 나누어지는데, 두 접근의 근본적인 차이는 원문화와 주류문화와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달려 있다. 단일



문화는 자기감(sense of self)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정체감의 한 영역은 특정 문화적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갖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원의 모델은 문화정체성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일 연속선상에서 나타난다는 암묵적 가정을 기초로 한다. 또한, 단일차원의 문화적응 모델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 자신의 원래 문화의 가치와 태도, 행동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며, 문화적응을 곧 동화(assimilation)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동화론에 가까운 단일차원 모델은 미국적 배경에서 개발되어 인종, 민족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에, 양차원적인 접근에서 문화적응은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정체성이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개념화한다. 이렇게, 개인은 원문화에서 발전된 자기 정체감을 포기하지 않고도 주류문화의 행동과 가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적응에 관한 양차원적 접근은 베리의 문화적응 틀 이론을 토대로 한다. 그는 심리적 문화적응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접촉단계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초기단계, 2단계는 갈등단계로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주류사회가 이주자들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단계, 3단계는 해결단계로 문화적응의 네가지 유형인 통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Berry 1992).

이에 따라, 베리의 이론에서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

〈표 1〉 심리적 문화적응 유형

		원문화 적응	
		높음	낮음
주류문화적응	높음	통합	동화
	낮음	분리	주변화

출처: Berry et al. 1997, 296 (채정민 2004에서 재인용. 필자가 재구성)

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된다(Berry 1980, 1990, 1997; 정진경 외 2004,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이 베리의 이론을 모델로 한 양차원적 접근에서 개인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도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남북관계와 북한이탈주민 정체성

문화적응에 관한 이론적 흐름을 살펴볼 때, 다차원적 접근은 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를 인정하고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문화적 응양상에 대해서도 단일차원보다 폭넓고 다양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이 이론이 인종, 민족이 다른 집단사이에서 일어난 문화 적응현상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인종과 전통의 차이보다는 사회 및 경제체제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면 고려사항이 달라진다.

뿌리깊은 동질성과 또 그만큼의 이질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교차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 역시 난민이자 이주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로 남한 내에서 북한에서의 독자적인 문화적 행동과 양식을 유지하고 원문화 정체성을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단일 문화지향적인 점과 열등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 문화적 다양성을 불인정하는 경향은 장기간 분단, 레드 콤플렉스와 같은 정치사회적 요소와 합쳐져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원문화를 집단적, 개인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쉽지 않고 유지하려면 많은 심리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채정민 200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원문화를 보유하는 쪽의 문화적응전략을 선택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적응적인 전략으로 동화적인 전략을 선택하거나 분리, 주변화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흔한 예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밝히기를 꺼려하며 조선족으로 위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북한출신이라는 원문화 자체가 한국사회 내에서 노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오히려 오명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원문화를 유지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적응 형태인 통합적 문화적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발견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문화적응 과정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대하는 시각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과잉동일시하거나 남한사회와 강하게 동일시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 내집단에 대한 과잉동일시는 무조건적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감싸고 이해하며 특수한 북한이탈주민의 입장, 처지 등을 주장,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을 옹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남한사회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집단은 남한 사회에 대해 분리적인 문화적응 과정 속에 있으며, 그 반작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의 응집력과 결속력은 높아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인정에 대한 반응이거나, 원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이 강할 경우 원문화를 더욱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 남한사회와 강한 동일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인하며 남한사회와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따르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같은 집단의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자신은 다른 존재임을 알리려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고 주류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은 북한이탈주민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하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동화전략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동화전략이 보다 적응적으로 사용될 때는 남한문화를 자신이 적응해야 할 문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북한 출신임을 부정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집단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적응적인 동화는 자신의 원문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부인하지 않으며, 남한 사회를 적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힘입시키지 않고 소속감과 자기 가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셋째로, 양쪽 문화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 혼란감과 외로움을 겪는 고립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양쪽 문화 모두에서도 자신의 접촉점과 자기 존재감을 발견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타국으로의 재이주를 시도하는 그룹은 이 상태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문화적응전략은 주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여러 적응 전략은 한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도 변화하는 것으로, 주변화는 동화, 통합, 분리 등 의 다른 문화적응과정을 겪다가 귀착되는 것이기도 하다(채정민 200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원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쪽보

다는 남한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쪽이 더 적응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적응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가치감 발견과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⁴⁾ 통독과정에서 서독의 자본주의적 가치와 행동원리를 동독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심각한 자기정체성과 자긍심의 훼손을 경험했고 이런 경험이 동독주민의 자율적인 변화를 저해했다고 알려져 있다(전성우 1997). 한국사회에 살고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도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원문화를 인정하고 균형잡힌 문화적 정체감(cultural identity)을 형성하기에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방향을 설정하는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남북간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문화적응

앞 장에서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행위자적 측면을 다루었다. 문화적, 심리적 적응문제는 적응해야 하는 행위자 외에도 그들이 적응할 공간과 문화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자 하는 남한은 매우 동질적인 한민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생경한 정착지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착지로서의 대한민국

킬리(Keely 1996)는 난민문제는 근대 민족국가, 영토국가를 전제로 할 때만 이해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민족국가가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하나의 국가 안에 복수의 민족이 존재할 때이다. 즉 근대국가의 핵심인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다. 아프리카에서 빚어지는 많은 참상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국가의 통치체제나 경제체제에 대한 이견(이데올로기)이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때이다. 셋째는 국가 내 자원의 결핍이 심각할 경우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택한 정착지로서 대한민국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단일민족을 오랜기간 한 영토에서 유지해온 경우이기 때문이다.⁵⁾ 동시에 한국은 근대국가로서 민족문제를 미제(未濟)로 남겨둔 사례이기도 하다. 근대국가 설립과 함께 분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앤더슨(Anderson 1991)의 서명(書名)인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가 함축적으로 표현하듯이 민족국가는 인종, 언

4) 작년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58.4%가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여기고 불과 6.3%만이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했다.(연합뉴스 “국내 탈북자 과반” “나는 북한사람” 2009.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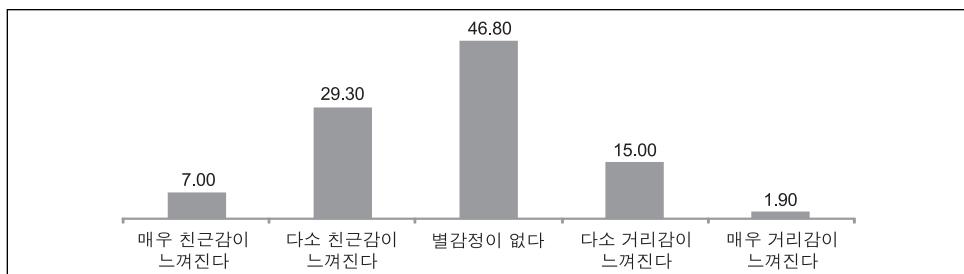
어, 종교 등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근대 산업화와 영토국가의 정립과정에 재현된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 근대적 의미의 ‘민족’(nation)이란 유전적, 생물학적 실체라 기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적 유대인 것이다. 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인종적, 언어적 동질성을 가졌지만,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 실패하고 분단된 채로 살아왔다. 냉전기 북한 엘리트 중심의 탈북이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었다면, 현재의 탈북은 대부분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에서 기인한다. 퀄리가 제시한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이 작동돼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보편적 난민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지만, 동시에 분단과 냉전기를 거치며 고착화된 문화적 격차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동질적이라는 한 극단과 완전히 이질적이라는 다른 극단이 나타나곤 한다.

냉전시기에 탈북하여 귀순한 사람들은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경제난이 주된 탈북의 이유이고, 남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국내정착을 돋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난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다 온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을 정착지로 선택하는 이유도 상당부분 여기서 기인한다.

통일연구원은 90년대 초반부터 2, 3년 간격으로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2005년 조사에서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율은 아래와 같다.

친근감을 느낀다는 쪽이 여전히 많지만, 별 감정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불과 2년 전인 2003년 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 별 감정이 없다는 응답은 22%에도 못 미쳤다. 문항구성이 달라 발생하는 프레임 효과

〈그림 3〉 일반국민의 새터민에 대한 인식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2005년) (<http://www.kinu.or.kr>) (검색일: 2009. 2.1)

5) 동양학의 권위자인 하버드대의 페어뱅크는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국가로 알려진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동질적인 나라라고 지목하고 있다(임혁백2009)



통합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단일한 체제에 속해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를 감안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이러한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 중 일부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우리 사회 영세민에 대한 지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탈북자들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는 애로를 토로했다.⁶⁾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영국행 러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착지원에 대한 회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불신, 배신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반응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은 통일을 대비한 시험대라고 간주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남북의 체제이 질적인 사고와 문화, 가치관이 서로를 만나 갈등을 일으키고 해결에 이르는 과정의 경험이 현재 한국사회의 국내통합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방식은 자칫 하면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표본이 되기 어려울뿐더러 혼란한 탈북과 국내정착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한 자기 정체성을 무시할 수 있다. 더 문제는 통일이라는 최종목적을 전제로 한 도구적인 접근이 실지로는 개인적, 집단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장집(2006)은 통일론을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적 주장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남한이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북한에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간의 평화공존 과정을 설정한다. 그는 어느 것이든 통일론은 매우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통일론은) 차이를 갖는 두 개의 정치단위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제, 하나의 가치로 통합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공존론적 접근과 다르다. 통일을 지향하며 두 개의 차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우위를 점하고자 시도하고, 국가간 균형이 언제나 유지

6) 통일부 조재섭 사무관(연합뉴스 “탈북 부부, 권위 의식 대 가정민주화 의식 충돌” 2009.6.5)

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위계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승리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통합의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기도 쉽고, 통합은 차이를 위계적으로 질서 짓는 것을 의미하기 쉽다.”(최장집 2006, 217)

이런 논지에 따르다면 통일을 목표로 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접근은(다차원적) 문화적응과 논리적인 모순관계에 처할 수 있다.

통합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단일한 체제에 속해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Deutsch et al. 1957). 통일이 일회적이고 이분법적인 현상이라면, 통합은 정도의 문제로 통일에 선행하며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통합에 관한 국내 이론은 이질화 극복과 동질적인 문화 형성을 남북통합의 선결조건으로 보는 입장과 동질성 회복보다는 남북이 갖고 있는 이질성을 차이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분류 할 수 있는데, 후자의 입장은 양 사회가 가진 상호의 강점이 최대한 활용될 때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윤인진 2005). 후자의 입장은 다원주의에 기초하며 통합을 상호적이고 과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북한이 탈주민의 문화적·심리적 적응에 대해서도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탈북선택과 남한정착을 궁극적인 민족의 통일에 결부시켜 이해하게 되면 실지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남한문화특성

문화적응은 한 방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나 수용국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남한문화의 어떠한 특성이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 적응을 중재하고 있으며, 중재의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 내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독특한 남한문화의 속성, 전통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동의 천시와 적당주의,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의사소통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유명기 1997). 첫째, 남한 문화의 강한 위계의식과 권위주의는 성, 연령, 지위, 학력, 재력 등을 기준으로 신분의 서열을 매기며, 그것에 상응한 행동양식을 취해 대인관계 질서를 유지한다. 특히, 육체노동을 천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난하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타 문화집단의 자질과 문화수준까지 멸시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 이 같은 남한문화의 위계의식과 육체노동 천시 현상은 북한이 탈주민을 전형적으로 결핍적 존재로 보게 만든다. 남한사람 주류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북

한이탈주민은 결핍과 박탈로 일관되어 있다. 즉, 신체적 왜소함, 저소득계층, 낮은 학력과 노동력 등 남한 사회에서 경쟁력이 약하며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 까지 문화적 박탈과 열등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기보다, 남한문화의 가치가 암묵적으로 습득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강화시키며, 강점이나 자원을 간과하고 저평가하여 적응에 중요한 이들의 현실능력을 강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남한문화의 특징으로 배타주의와 폐쇄성을 들 수 있는데,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모든 인간집단에 공통된 현상이나 한국인들의 우리에 대한 애착과 남에 대한 배타성은 유별나서 자기민족과 이민족을 철저히 구별, 일정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인과 어울리기란 쉽지 않다(유명기 2000). 이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고 문화의 상대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우월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배타주의와 폐쇄성은 은연중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남한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며 남한화되는 것을 적응의 지표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러한 남한문화의 특성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소외자로서의 경험을 반복하게 만들며 원문화에 대한 부정과 폄하로 이어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상당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정(情)과 같은 우리민족 특유의 정서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남한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까이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형태에는 쉽게 정을 주고 하나의 내집단 성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정, 인정이 다른 특성에 비해 잘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대표 성격이며, 한국문화에서 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식이 강하다. 다만, 이 정도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접촉이 있어야 하고, 상호 이해와 도와주는 행동, 동고동락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한규석, 최상진 1998). 이런 관계의 특성을 볼 때,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응 과정은 남한주민들의 양가적 개입에 기반한 밀착 인간관계 중심형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채정민 2004). 남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사무적인 태도에 사회가 냉정하다고 판단하며 분노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에 대해 형제자매와 같이 정감있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정, 인정을 중

시하는 태도는 남북한 문화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열등외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비교적 낯선,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문화를 깊이 생각할 필요나 다른 문화를 이해할 노력의 필요성 역시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는 전술한 대로 단일민족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고유한 역사에서 상당부분 비롯된다. 우리는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 문화 집단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사회의 주류가치에 따라 타문화 집단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응은 대체로 소수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요구받는 것이나, 주류문화 집단에서도 이문화와의 문화접촉에서 문화적응과정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다른 점이 애써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문화적 요소를 축소하여 지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편적인 인간이 해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편견 없어 보이려는 욕구가 강할 때 나타나기 쉽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고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꺼리거나 과도하게 보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인식하는 태도이다. 이는 사회주류의 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편견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서 발로하기도 하며, 인도주의적 태도가 너무 강할 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로 문화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을 희생자나 소외자 역할에 안착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힘의 우위를 가지려는 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남한 사회에서 정보적으로 미숙하고 소외되어 있는 반면, 자신이 주류사회 한 사람이라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제, 지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정서적, 물질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동성이나 의존, 심지어 무력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이나 이슈는 민

감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태도 역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사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을 축소해서 생각하거나 과장하여 평가하는 등 비일관적이고 이중적인 잣대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에서도 드러난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탈북자의 모습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고소득을 올린 성공사례나,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단적인 모습들이다. 이러한 일화중심형(episodic) 프레임은 책임소재의 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을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가리는 효과를 갖는다.⁷⁾ 이런 보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동화되어 주류에 편입되었나의 여부로 평가받게 되기 마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대상화되고, 일방적으로 동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논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원문화와는 다른 문화에 접촉하여 살고 있되, 자신이 속한 주류사회에서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그런 점에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문화가 접촉하며 발생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양상을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 응용을 우리 사회에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호적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책분야에서 고안된 ‘상호주의’라는 개념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개인적 맥락에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형성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문화적으로 우리와 서로 다른 경험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특성이 형성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의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채 개인적 해석에만 치중할 경우, 새터민 행동의 사회문화적 규준을 잘못 파악하여 행동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민족적 뿌리가 동일하지만,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바, 정서와 감

7) 일화중심형 프레임 개념과 관련해서는 Iyengar 1991 을 볼 것.

정, 인지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새터민 일반의 심리적 특성을 한층 심도깊게 알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새터민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해석과 적절한 개입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수 2009,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정주신 편 『현대 탈북자 문제의 이해』 프리마
- 독고순 2000,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명기 2000, “한국의 제3국인, 외국인노동자,” 임지현 외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 유명기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
- 윤인진 2005,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정책과학연구』 15권 1호
- 임혁백 2009, “위기의 한국사회와 한국사회과학의 위기,” 전국 국·공립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문 2009년 3월 27일
- 전성우 1997,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p. 1-44.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권 1호.
- 채정민 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장집 2006,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해제모니』 후마니타스
- 한규석·최상진 1998,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 문화와 한국인』, 161-196. 사계절.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한국어판: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2)
- Atkinson, D. R., C. E. Tompson, and S. K. Grant 1993, “A Three-dimensional Model for Counseling Racial-ethnic Minorit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 257-277.
- Basoglu et al. 2001. “Torture and Mental Health: A Research

- Overview,” in Gerrity, Keane and Tuma(Ed.),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orture*(pp. 35–62). NY: Kluwer Academic/Publishers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new findings* (pp.9–25). Boulder, CO: Westview Press.
- Berry, J. W., U. Kim, S. Power, M. Young, and M. Bujaki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 185–206.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8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Chang, Yoonok,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8,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Working Paper Seri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Deutsch, Karl W. Sidney A. Burrell, Robert A. Kann, Maurice Lee, Jr., Martin Licherman, Raymond E. Lindgren, Francis L. Loewenheim and Richard W. Van Wagenen 1957,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yengar, Shanto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ely, Charles B. 1996, “How Nation–States Create and Respond to Refugee Flow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4)
- Redfiel, R.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yder, A. G., L. E. Alden, and D. L. Paulhus,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l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Ward, C. and W. C. Chang 1997, “Cultural fit: A new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d sojourne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 525–533.
- Ward, C. and A., Kennedy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tledge

Wirth, Louis. 1945,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 In J. N. Frinkle and R. W. Gable(Ed.)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

The book cover features a globe with blue oceans and green continents. At the top right is a logo with four circles and the text '도서안내'. The title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is at the top, and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is in a large, bold, black oval in the center. Below the globe is a section titled '〈주요 목차〉' with two lists of contents:

제 1 부

-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 2. 개념 정의
- 3. 네이션
- 4. 내셔널리즘
- 5. 국민국가론

제 2 부

-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 3. 러시아연방 : 마트료시카적 중층성
- 4. 미국 : '웰링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Toward Reciprocity of Acculturation: Socio-psychologic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in South Korea

Eum-Kyoung Kim

(Psychology, PhD. Student, Korea University)

Suk-Jae Hur

(Political Science, PhD. Student, Korea University)

Key words: refugee, psychological difficulties, acculturation, integ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refugees'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existing researches generally focused on their material circumstances. However, most of the refugees suffer from various kind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Psychiatrist usually shed light on pathological phenomena of their mental health. Their difficulties can be derived not only from severe experiences during the escape but also from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Acculturation theory provide useful ideas to alleviate their psychological difficulties.

People does often underestimat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two nations because of their homogeneity with regard to customs, history and language etc. The ignorance of difference may enforce North Korean refugees to assimilate rather than integrate with South Korea, in that acculturation asks reciprocal approach. Put differently, acculturation can be successful when we pursue the social integration as a process.